

바로크 시대 음악 2권 p.107	비발디 <사계> 中 ‘여름’ 3악장	학년 반 번
		이름:

■ 안토니오 비발디 Antonio Vivaldi (1678–1741)

- 출생: 이탈리아 베네치아
- 직업: 바이올린 연주가, 작곡가, 사제, 음악교사
- 대표작품: 바이올린 협주곡 <사계>, <조화의 영감>



■ 바로크 음악 (17C ~18C중반)

- 1600년경~1750년경까지 유럽에서 발전한 음악
- 작곡가: 비발디, 바흐, 헨델 등
- 특징



- ① Baroque: 포르투갈어 *pérola barroca*(일그러진 진주) 에서 유래
→ 과한 장식음 사용, 독주악기의 기교 강조
- ② 현재의 장단조체계 확립
- ③ 성악음악(오페라, 오라토리오, 칸타타) 및 기악음악(협주곡, 푸가, 모음곡) 모두 발달

■ 사계 <화성과 창조의 시도 Op.8> 12곡 중 1~4곡

- 장르: 바이올린 협주곡

협주곡이란? ①독주악기(or 독주악기 그룹)과 ②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곡.

↳①이 독주악기면 ‘독주협주곡’ / 독주악기 그룹이면 ‘합주협주곡’

- 악기 편성: 바이올린, 비올라, 첼로, 콘트라베이스, 쳄발로
- 1번 봄, 2번 여름, 3번 가을, 4번 겨울: 각 곡마다 3악장씩 구성
- 사계절의 변화를 묘사: 각 계절마다 소네트(14행시로 이루어진 시)가 붙어 음악의 장면을 설명

■ 사계 중 ‘여름’ 3악장 부제: 폭풍(Storm)

주제 Presto

제3악장

- 심한 태풍과 폭우가 내리치는 여름의 격정적인 광경 묘사. 독주악기인 바이올린의 기교가 돋보임.
- 여름 3악장에 붙은 소네트

<p>Ah che pur troppo i Suo timor Son veri Tuona e fulmina il Ciel e grandioso Tronca il capo alle Spiche e a' grani alteri.</p>	<p>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무서운 번갯불. 그 뒤를 우렛소리가 따르면 우박이 쏟아진다. 잘 익은 곡식이 회초리를 맞은 듯 쓰러진다.</p>
---	---